

성철 스님 뜻 퍼져 나간다

백련불교문화재단, 4월 25일 부산 고심정사 개원



성철 스님의 뜻을 펼칠 고심정사가 4월 15일 연건평 930평 규모로 부산 중앙동에 문을 열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부산 중앙동 고심정사에서 되살아나 대중들을 찾아 온다.

4월 25일 개원한 고심정사는 성철 스님의 뜻을 도심 속에 널리 펼치기 위해 백련불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불자부부의

기증 받은 토지, 수행 포교 시민 공간으로

원택 스님 '참선반' 운영...용맹정진도 진행

기증으로 불사가 이루어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성철 스님이 머물렀던 인연을 가르침을 펴는 공간으로 써달라며 토지 일체와 건물을 백련불교문화재단으로 기증했다. 고심정사는 이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93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심정사는 수행, 포교 공간뿐 아니라 부

산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심정사가 가장 주안을 두는 점은 성철 스님의 뜻을 이어 선의 기분을 바로 세워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화선의 기초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이 직접 참선반 지도에 나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으로 참선반을 모집하고 있다. 한달 과정으로 계획 중인 참선반은 유희사나, 요가선 등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서 간화선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선의 입문' 과정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토요일 오후 8시부터는 월야 용맹정진 수행도 진행된다.

고심정사 주지 원택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과 성철 스님의 체계를 제대로 전달해서 많은 대중들의 발심과 수행을 이끌어가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051)464-006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진주 여래사, 경로위안잔치



4월 22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가수 주현미의 흥겨운 노래가 지역 노인들의 박수 소리와 어울려 울려 퍼졌다. 배일호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진주 여래사(주지 동봉) 신도회와 사회봉사 불국정토회(총재 동봉)가 1979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시민위안 경로잔치가 열린 것(사진). 올해로 11회째.

진주지역 2천여 어르신들이 함께 한 이날 공연은 노래가 끝날 때 마다 박수가 쏟아지고, 배일호씨의 재담에 웃음이 터지고 국악인들의 민요가락에 어깨가 절로 들쭉이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느새 환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동봉 스님이 노인복지, 지역 복지, 교도소 포교 등을 위해 설립한 사회봉사불국정토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불국정토

회는 이 밖에도 여래사가 위치한 상봉동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상 차려드리 는 행사를 42회째 실시하고 있다.

동봉 스님은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는 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노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며 "그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여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용호복지관, 장승축제 개최

지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지역 문화축제인 용호장승축제가 5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용호복지관(관장 혜총)가 지역 주민들의 단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장승축제는 올해로 두 번째. 올해 축제는 6일 오후 2시 용호복지관 담장을 따라 세워진 10두의 장승에 지역 주민대표 및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 모시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첫날에는 지역 내 칠촌, 팔촌, 구촌 어르신 을 위한 장승잔치, 먹거리, 볼거리 이벤트 등 흥겨운 행사가 열리는 주민참여축제 행사와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장승그리기 대회 시상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둘째 날인 7일에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르신 호 큰잔치를 열고 똑똑 노인 및 영세 노인 1천명을 초청 공연 및 식사를 대접한다. (051)628-6737 천미희 기자

부산·대구 봉축행사 준비 분주

4월 29·23일 점등식

부산과 대구 봉축위원회가 4월 29일과 23일 각각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열고 봉축 행사에 돌입했다.

부산 봉축위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부산 시 전역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봉축행사를 마련한다.

5월 5일 오후 3시부터 봉축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진을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비롯 4일에는 부산발전기원 3천배 철야정진이 부산역광장에서 봉행된다.

이 밖에도 각종 복지행사를 중심으로 한 '나눔의 장',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와 공연 중심의 '시민과 함께', 청소년 행사 중

심의 '미래의 장' 등이 부산 전역에서 열리며 부처님 오신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게 된다.

대구 봉축위는 4월 23일 대구국제보상공원에서 봉축탑 점등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컵등 시연회, 봉축 캐릭터 그리기, 연등 소원지 달기, 단청그리기, 영산재, 난타공연 등이 펼쳐져 대구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 봉축위는 5월 8일 오후 4시부터 두류야구장에서 연등축제를 봉행하고, 두류공원에서 두류네거리, 반고개를 지나 반월당대거리까지 이어지는 제등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108배로 참여하는 음악회"

명상 통한 지구사랑 새겨



2005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4일 김영동과 함께 하는 "일백여덟배의 절로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는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사)생명과학회, 대구모임이 주관했다. 은석사 주지 허은 스님, 고산성당 정홍규 신부

등 지역 종교계 인사와 대구시민 300여명은 약 1시간 동안 김영동씨의 한 음반 '생명의 소리'에 맞춰 108배를 한 후 명상을 하며 지구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편안한 대금소리가 도심을 흐르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일배, 일배, 멘트에 따라 몸과 마음을 맡기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은 더욱 깊이 내면으로 찾아드는 모습이었다.

김영동 씨는 "웰빙 시대, 심신이 건강한 사회를 발원하며 생명의 소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영동씨의 2차 공연은 부처님 오신날인 5월 15일 광주 증심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대구불방 '한마음 합창제'

대구불교방송과 삼양불교서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5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한다.

5월 3일 오후4시 대구 인터볼호텔 전 시퀀스홀에서 개최되는 합창제는 1부 합창제, 2부 저녁 만찬, 3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합창제는 포항 육천사 반야합창단을 비롯해 대구 은석사 불미니 합창단 등 단원 25명 이상을 보유한 11개의 대구경북지역 불교합창단이 참가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예정이며, 3부 축하공연에는 대중가수 안치환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불 스님과 도일 스님이 특별 출연한다. 대구불교방송은 합창제실황을 녹음중계방송하고 테이프와 CD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053) 427-5114

배지선 기자

부처님 오신 날



우수 불교도서 특별전

부처님의 지혜를 밝혀주는 41종의 금사라기 책

-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김영사·달라이라마
- 성철스님 시봉 이야기 1,2 김영사·원택
-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더북컴퍼니·정휘옥
- 365일 부처님 말씀 동승동·윤정화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민족사·석성우
- 왕초보 불교 박사 되다 민족사·석지현
- 도반 1,2 리즈앤북·원성
-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운주사·정수원
- 그래서 어쨌든 말이고 들녘·이오안나살라진
- 부처와 돼지 시리즈(전4권) 들녘·고이머.모시히로
- 불교를 알기 쉽게 밀알·서종범
- 법화경의 세계 - 믿음으로 깨어나기 부다가야·히라가와 아카라
- 남 잘되게 하기 부다가야·오십
- 마음 공부 이야기 불광출판부·법상
-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유식 30송 불광출판부·서광
-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장승·홍사성
- 홀로 사는 즐거움 샘터·법정
-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숲바람·방정일
- 나는 붓을 던져도 그림이 된다 아름다운인연(조계종)·박영택
- 소통 좁는 아이들 아름다운인연(조계종)·최시선
- 선 너는 누구나 여시이문·현대불교신문사
- 왜사는가 1,2 열림원·무량
- 선방 가는 길 열림원·정찬주
- 녹차와 채식 우리출판사·홍승
- 전통사찰 음식 우리출판사·적문
- 산중에서 길을 물었다니 은행나무·서희동
- 탁났한 스님의 금강경 장경각·탁났한
- 해탈의 길 장경각·최용성철
- 백일법문(상,하) 장경각·최용성철
- 달라이 라마의 자비 명상법 정신세계사·라마에세플랜
- 이판사판 화엄경 정신세계사·성범
- 어디에 있는 자유로우리 청아출판사·탁났한
- 절마다 이야기 구구절절 해나나무·이승기
- 행복하게 사는 법 아담잡지 죽는 법 행복한 세상(여래)·정재
- 기도 효험출판사·일타
- 조용현의 사찰기행 이가서·조용현
-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도솔·소운
- 행복하게 미소짓는 법 도솔·성진
- 마음밭에 무얼 심지? 해토·최영순
- 산에는 꽃이 피네 동쪽나라·법정
- 인연 이야기 동쪽나라·법정

우수 불교 도서 구입시 한 권에 한 개의 단주를 드립니다

주최 불교출판문화협회 주관 (주)부세통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법보·불교·현대불교신문·불교방송국·불교TV

■ 서울	영동문고(영동문고) 02-6282-1354	불광문고 02-383-4236	북스리브르(수정문) 031-240-2204	영동문고(영동문고) 02-602-6128-7	■ 충청	대전서점(대전서점) 042-254-7001	충청서점(충청서점) 062-227-1932
교보문고(교보문고) 02-397-3588	지나스북(영동문고) 02-2671-5951	프리임문고 02-3424-1453	교보문고(부정문) 032-683-3501	경인문고 032-654-1677	홍문당(홍문당) 043-293-0161	대전서점(대전서점) 042-487-4900	삼북서점(삼북서점) 062-222-0256
영동문고(영동문고) 02-399-5635	동화서적(동화서적) 02-3420-2111	대성문고(대성문고) 02-427-8190	경남북 031-922-5000	시민문고(시민문고) 032-866-8238	양지문고(양지문고) 041-556-6001	대전서점(대전서점) 042-822-7171	삼북서점(삼북서점) 062-383-4250
북스리브르(북스리브르) 02-757-8100	서울문고(서울문고) 02-6002-6050	■ 경기·수도권	북스리브르(북스리브르) 031-979-6188	대동문고(대동문고) 031-447-7000	계룡문고(계룡문고) 042-222-4600	대전서점(대전서점) 042-254-7007	초원문고 062-573-7007
교보문고(교보문고) 02-530-0326	두레문고(두레문고) 02-932-3824	북스리브르(북스리브르) 02-6341-8101	동원서적(동원서적) 031-563-4821	동남서적 031-251-3829	■ 대전		

전국 주요 대형 서점 53곳에서 2005.4.29~5.22